

제6회 경기도 시낭송의 밤  
시가예찬 詩歌禮讚 2016

# 위대한 일상

일시 : 2016년 10월 22일(토) 오후 4시

장소 : 남양주시청 <다산홀>

시가예찬 詩歌禮讚 2016

# 위대한 일상

## 인사말

말할 수 없는 것이 글로 표현될 때 그것을 시(詩)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힘을 '감수성'이라 정의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의 언어보다 기계의 말을 더 많이 배우고 자랍니다.

현대사회는 언어의 의미가 과잉되고, 정보화되고 기계화된 소통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 시각보다는 청각에, 청각보다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작은 떨림을 감지하는 '감각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문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 기존의 가치와 의식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하기에 중요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경기도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의 중심에서 지역을 일깨우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선언하는 자리이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온몸의 감각을 열어 시에 담긴 감정을 직접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가에찬2016'의 주제는 <위대한 일상>입니다.

삶의 역경 속에서도 일상을 충실히 살아낸 다산 정약용의 삶과 철학 그리고 시(詩)를 통해 <위대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현재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낭송의 밤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진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더 의미있어지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을 밤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 격려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는 경기도 시 낭송의 밤 '시가에찬 詩歌禮讚 2016'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은 비움을 시작하는 계절이자, 사색의 시간입니다.

시(詩)는 짧은 언어로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감성을 일깨워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정신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와 함께 삶을 풍성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시(詩)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바쁘고 각박해진 탓도 있겠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여유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번 '시가에찬 詩歌禮讚 2016' 행사는 시를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적 소통의 자리이며, 나아가 경기도 31개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문학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을 비롯하여 시낭송 및 공연 출연진과 행사의 성공을 위해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 경 동

## 축사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시월에 「제6회 경기도 시낭송의 밤-시가예찬 2016」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을 비롯한 행사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시낭송의 밤은 매년 시(時)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을 문학적 감성으로 재조명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문학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양주에서 태어나 실학사상을 널리 알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작품을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시문학을 매개로 다산 선생의 삶과 철학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를 표현하는 시낭송 뿐만 아니라 노래·무용·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소재로 한 공연들은 도민들에게 어려운 인문학을 좀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인문학 관련 행사도 활발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6회 경기도 시낭송의 밤-시가예찬 2016」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시와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을 한가득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 축사

서리 내리기 전에 '시가에찬(詩歌禮讚)' 어떠세요?

다산의 고장 남양주에서 열리는 '시가에찬(詩歌禮讚)'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목민심서>이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백성을 많이 사랑하신 분이고, 백성을 위한 현실정치를 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이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기셔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경기도시낭송의 밤 '시가에찬(詩歌禮讚)'은 다산의 문학적 감성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산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나갈 때 '죽란시사(竹欄詩社)'라는 모임을 만들어 시화로 우의를 다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이는 시기가 매우 시적이라는 겁니다. '살구꽃 필 때', '복숭아꽃 필 때', '국화가 필 때', '늦여름 연꽃이 한창일 때', '오이가 익을 무렵', '큰 눈이 내리면 한번' 등으로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 흉내를 내자면 오늘 만남이 절기상 상강(霜降)을 앞두고 있으니 '서리 내리기 전에는' 어떨까요?

시낭송과 음악시, 글과 몸짓, 영상과 사색이 어우러지는 오늘의 무대는 행사 타이틀 대로 '위대한 일상'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문화이고, 그 문화가 곧 내일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올해로 6년째 '시가에찬(詩歌禮讚)'을 경기도민의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는 '문화예술'로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문화가 도민의 삶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 축사

다산의 고장 남양주에서 제6회「경기도 시낭송의 밤」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층 완연해진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계절에 경기도의 아름다운 밤하늘과 운취를 느낄 수 있는 이 곳 남양주에서 인문학적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주신 경기도문화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남양주의 역사문화 인물인 다산 정약용의 삶과 철학, 그리고 문학적 감성을 재조명하고, '위대한 일상'이라는 부제로 다산 사상을 시(時)로 표현하여 도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경기도 출신의 시인의 시를 접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와 같은 훌륭한 저서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능력도 탁월하여 2,500여 수의 시를 남긴 뛰어난 시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시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보여준 다산의 실학정신을 되새김 해보고, 시와 공연이 함께하는 경기도민의 화합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아 우리 도민 모두가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풍요로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

## 환영사

이례적인 무더위로 길게만 느껴지던 여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덧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깊은 가을로 들어선 오늘, 늦가을 정취에 걸맞은 '제6회 경기도 시낭송의 밤' <詩歌禮讚(시가예찬)> 이 남양주시에서 개최됨을 축하드리며, 찾아주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관계자분들과 남양주 시민, 경기도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6회 경기도시낭송의 밤' <詩歌禮讚(시가예찬)> -위대한 일상 에서는 우리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서 저 또한 오늘 프로그램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각종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요즘 젊은 세대 'SNS세대'에 대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즉각적인 대화에 익숙하여 본인의 사유를 담은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첨단화된 시대에 각종 유희거리가 주변에 많다보니, 폭넓게 사유하고, 사색을 통해 글을 쓰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여러 장에 걸친 백 마디의 말보다 압축된 정서를 담은 한마디의 詩구에 깊은 울림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민의 인문학적 화합의 장임과 동시에 각 관람객분들께는 문학적 인 감성을 깨우는 문화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님과 이보궁 남양주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양주시장  
이석우

## 환영사

제6회 경기도 시낭송의 밤이 『시가예찬 詩歌禮讚 2016 위대한 일상』이라는 부제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느라 애쓰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과 남양주문화원 이보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문학의 활력이 쇠하고 우리 사회가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에 잠자고 있는 시를 독자와 함께 소통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운동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시낭송은 시를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시낭송 재능 나눔으로 시의 바른길을 세워나가려고 수고해 주시려는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길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고 걷는 이가 있어서 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낭송 보급뿐 아니고 시낭송 문화 활성화에도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삶의 애와 즐거움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제6회 경기도 시낭송의 밤 행사를 축하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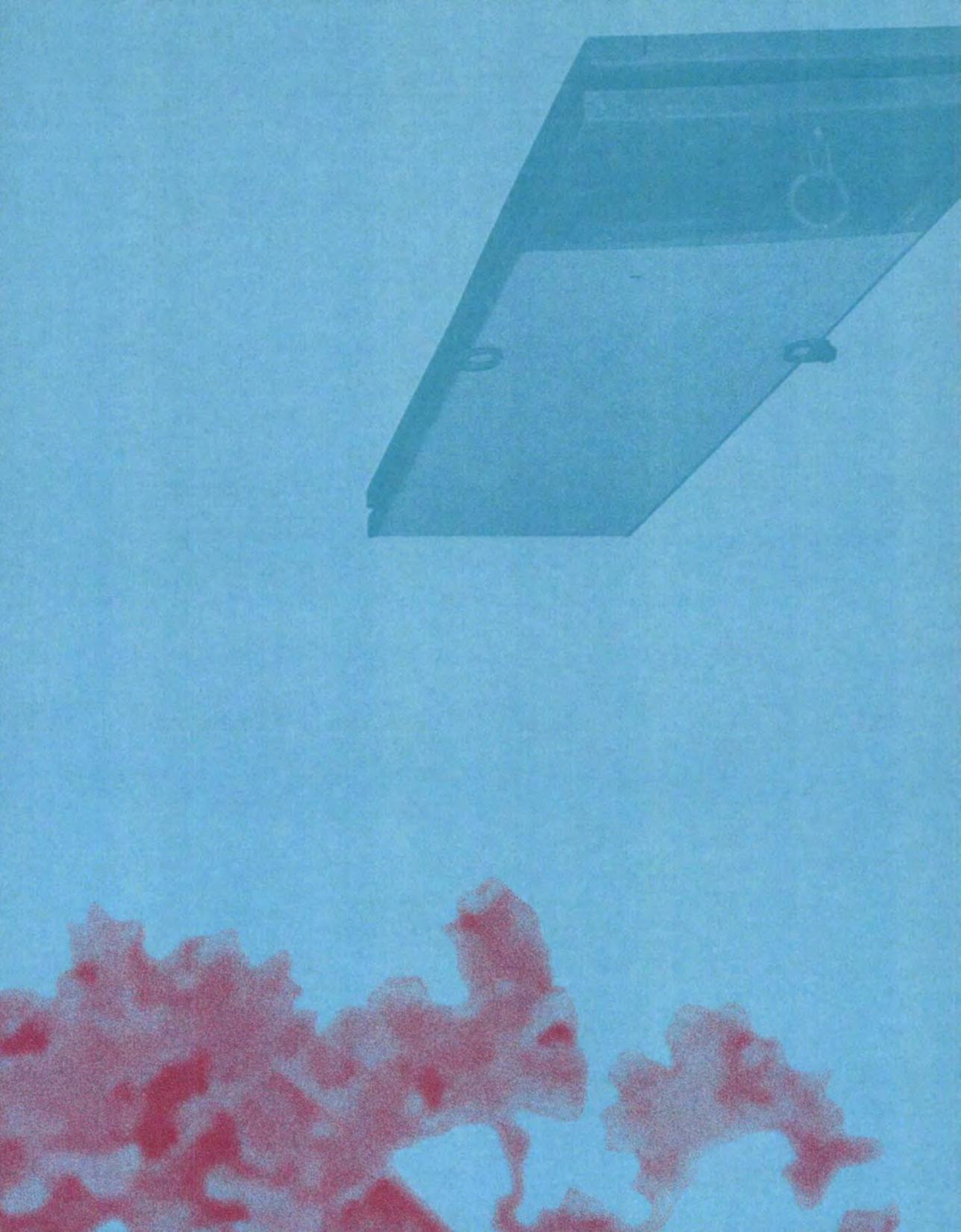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장  
박유희





# 프로그램

## Part 1. 일상이 위대해지는 정치

시극_ 따뜻한 봄날_김형영 作 .....	시낭송가 서수옥, 홍성례
길-밭에 가서 다시 일어서기 1_ 김준태 作 .....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위대한 그분_ 김정현 作 .....	김정현 남양주시 학생
존경하는 선생님_ 최선우 作 .....	최선우 남양주시 학생
선물_ 최주식 作 .....	시인·낭송가 최주식

## Part 2.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게 하기 위하여

퍼포먼스 I_ 시와 음악 .....	스테빌앙상블
귀천_ 천상병 作 .....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승무_ 조지훈 作 .....	공창배 오산문화원장, 무용가 박정희
행복_ 유치환 作 .....	황석영 경기시낭송협회 회원
퍼포먼스 II_ 시와 노래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	성악가 송형빈

### Part 3. 누구나 행복한 삶은 가능한가?

당신을 보았습니다_ 한용운 作 .....	포에라머 공혜경
사랑법_ 강은교 作 .....	이희숙 남양주시 시민
흔들리며 피는 꽃_ 도종환 作 .....	송낙영 경기도의원
하늘의 정원_ 김현영 作 .....	김현영 남양주시 학생
퍼포먼스Ⅲ_ 시와 몸짓 〈만약 내가〉 .....	무용가 주정현
가을 여행_ 서하영 作 .....	김문경 구리문화원장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_ 신동엽 作 .....	이보금 남양주문화원장



part 1



# 일상이 위대해지는 정치

# 시극

## 따뜻한 봄날

김형영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서수옥

시인·시낭송가·방송인  
일청낭송문학회 회장  
문학나눔동행 대표  
전국시낭송경연대회 대상



홍성례

한국종합예술대전 대상  
재능 시낭송 서울시 최우수상, 전국대회 금상

어디로  
가야 길이 보일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에서 출렁이고 있을까

더러는 사람 속에서 길을 잃고  
더러는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가

사람들이 저마다 달고 다니는 몸이  
이윽고 길임을 알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기쁨이여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도시 변두리 밭고랑 그 끝에서  
눈물 맺혀 반짝이는 눈동자여

흙과 서로의 몸 속에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바로 길이었다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수정처럼 맑은 물 용솨아 흐르고  
두 눈 시리도록 파란 하늘 가득히  
천마가 비동하는 절마산 휘돌아 있는 이곳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나고 성장하신 곳

선생님의 삶은 비록 힘겹고 고단하였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백성에 대하여  
언제나 하염없는 사랑을 주셨던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충신이셨던 선생님

현대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거중기를 제작하시고  
목민심서로 관리들의 몸과 마음가짐을 가르치시며  
조선의 부국강병을 이루려 했던  
선생님의 꿈은 여유당집에 고스란히 담겨져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여기 이곳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애민정신의 혼이 살아 있으며  
후대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나의 고향이기에  
더욱 더 소중하고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도 가슴 속 깊이 아로새긴다.  
“에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현  
평내중학교 3학년

## 존경하는 선생님

최선우

1762년 자랑스러운 남양주 마현마을에서 태어나  
배고픔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본 선생님

학문에 정진하시던 선생님께  
“학문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실학이다”라고 하시는 선생님  
“실학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백성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선생님

선생님께서 하신 모든 업적들  
저중기라는 기계를 제작하신 것  
동산 위에 올라가 많은 책을 읽으신 것  
유배 가서서까지 목민심서라는 책을 저술하신 것  
모두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농민을 위해 농사직설과 경세유표를 지으시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자휠헌책을 반포하시고  
나라를 위해 흙흙신서를 지으신 선생님

중화주의에 빠져있던 조선 사회  
그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셨던 선생님의 노력과 희생이  
후대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의 실사구시의 과학정신을 소중히 이어가야겠다.



최선우  
평내중학교 1학년

내가 아름다워요 하면  
 그대에게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내가 사랑해요 하면  
 그대의 가슴은 따뜻해집니다  
 내가 고마워요 하면  
 그대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집니다  
 이런 기분 좋은 말 그대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누구나 즐거워지는 멋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해요  
 누구나 기쁨이 되는 감사해요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미안해요  
 누구나 위로가 되는 힘 내세요  
 이런 배려의 말 그대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용기를 주는 긍정의 말  
 무거운 짐도 가볍게 느껴지는 칭찬의 말  
 보석보다 빛나는 사랑한다는 말  
 생명과도 같은 축복의 말  
 이런 황홀한 설레임의 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최주식

시인·문학평론가·시낭송가  
 한국문인협회 위원  
 창작산맥 편집위원  
 전국 시낭송대회 입상



part 2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게 하기 위하여

# 퍼포먼스 I\_시와 음악

- Eine kleine Nachtmusik
- Por una Cabeza
-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 스테빌앙상블

스테빌앙상블은 명곡들을 대중성 있는 편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하는 동시에, 남양주 지역사회 음악계의 선두주자로서 시민 문화 예술 저변을 늘리고, 탄탄한 기획력과 다채로운 편성은 물론, 친근감 있는 연주를 통해 음악의 다양성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 승무 (僧舞)

조지훈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기록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뜨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공창배  
오산문화원장



박정희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 이수자  
한국국악협회오산지부 부지부장  
도화에술단장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슬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충충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형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어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황석영

시낭송가·경기시낭송협회 회원  
 경기시낭송협회 대상(2014년)

전국시낭송페스티벌·시마을·뉴스토마토주관 동상(2014년)

## 퍼포먼스 II\_시와 노래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작자미상(17세기 수녀)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 늙어 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 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에는 친구가 몇 명은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시오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바리톤 송형빈

이탈리아 V.Bellini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  
이탈리아 Pescara시립음악원 졸업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무악오페라단 등에서 다수의 오페라 출연



part 3

누구나 행복한 삶은 가능한가?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공혜경

포에라머·연극인·시인  
한국연극협회 정회원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한국시낭송공연예술원장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의  
오래 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 있는 누워 있는 구름,  
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 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이희숙  
남양주시 금곡동

##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송낙영  
경기도의원

푸른 바다와 하얀 꽃이 있는 곳  
하늘의 정원에  
증조할머니 손을 잡고 올라갔다.

먼저 하얀 꽃이 보였고  
하얀 꽃은 나에게 속삭였다

눈을 감고 경청해 보니  
하얀 꽃은  
“그곳으로 가면 정조임금이 사랑하신  
정약용 선생님이 계실거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하얀 꽃이 말한 그곳  
여유당에 갔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목민심서를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감사히 받았다.

고요한 곳에서 책을 좀 읽고 싶어서  
푸른 바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다로 가는 중에  
명성왕후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께서는 고종할아버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다.

다시 고요한 곳 푸른 바다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곳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하얀 꽃이 둥둥 날아다니고 있었다.

폭신평신향 하얀 꽃에 앉아 목민심서를 읽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고  
순간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늘도  
하늘의 정원 속  
푸른 바다와 하얀 꽃을 바라본다.  
그곳이 바로 내가 사는 남양주시의 하늘이다.



김현영  
백봉초등학교 3학년

# 퍼포먼스 Ⅲ\_시와 몸짓

만약 내가.



주정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무용원 실기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무용원 실기과 재학  
'나는 지금 톱니바퀴마냥 굴러가고있다' 안무  
2015 차세대 안무가전 우수작 선정 및 연기상 수상



오늘처럼 힘겨운 날  
가슴에 쌓인 작은 아픔들 훌훌 털어버리고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 따라  
나도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싶다

쓸쓸함이 밀물처럼 밀려와 코끝으로 스치는 바람마저  
스산함으로 찾아 올 때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나도 정처 없이 떠나고 싶다

하얀 도화지 속에 남 몰래 그려 넣었던  
석양빛 바닷가에서 고운님의 얼굴도 그려보며  
겹겹이 쌓였던 아픔들도 씻어내고 싶다



김문경  
구리문화원장

##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벽구름  
그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닭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 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보궁  
남양주문화원장

# 출연진

## 사회자

### 문정현

MoonAnnPowerSpeech [문정현아나운서파워스피치] 대표  
MBC아카데미CNM 아나운서교육팀장  
MBC어린이아나운서교실/ SK재단법인 행복한학교재단/  
한국창의진로교육개발원/  
서울 선일초등학교·우솔초등학교·백운초등학교 아나운서 교사



## 하우스밴드

### 안상훈 drum & percussion

Italia A.I.D.M Diploma . chitarra jazz Diploma  
lunar-hill 앨범 발매 및 멤버  
전) SBS "김윤아의 (music wave)" 세션  
전)그룹 "GILL" 앨범 발매  
Newage ensemble "YAK" 앨범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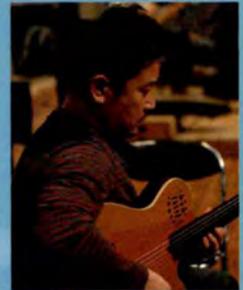
### 차승엽 piano & composer

이탈리아 A.I.D.M Diploma  
현)MBN 음악감독  
전) SBS 김윤아의 뮤직웨이브 음악감독  
musical / 폴몬티,뫼다이론 사랑 등 recording&live  
Newage ensemble "YAK" 앨범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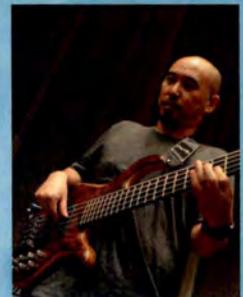
## 공정훈 guitar & composer

Italia A.I.D.MDiploma / chitarra jazz Diploma  
현)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국제예술원 출강  
현) 소리랑 음악제작실 실장  
전) SBS "김윤아의 (music wave)" session  
광주 비엔날레 작품출품 "나비"/ Fusion jazz band "12stage"/  
Newage ensemble "YAK" /  
Contemporary jazz band "Twostep" 앨범발매 등



## 이상진 bass & producer

현) 한국국제예술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전) Band "Girl" 3집 bassist 활동 - pony canyon  
애니메이션음반 Music Director  
영화 "주노명 베이커리" 타이틀곡 / "와이키키 브라더스" O.S.T/  
"Africa" O.S.T 삽입  
영화 "김관장 vs. 김관장 vs. 김관장" ost 전곡  
Cellist "홍성은"과 "홍성은 Quintet"



##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소개

경기도 31개 시, 군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경기도 지방문화 진흥과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경기도민과 문화적, 지역적, 역사적 소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문화를 지키고자 각 문화원 산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함께 경기도 내 향토문화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 및 보존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718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설립근거를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그리고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민족문화 창달과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사업의 지원자료 편간

## ● 2016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요사업 안내

### ▣ 향토문화연구

#### ■ 경기향토사학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경기도 향토사에 대한 총체적 연구 논문집, 경기도 향토사를 위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 경기도의 각종 향토문화역사자료를 조사, 연구,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경기도향토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 향토문화보급 활성화 사업

#### ■ 경기도 민속예술제

· 경기도내 각 시·군의 전통 민속예술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계승발전 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저변확대를 위한 민속예술 경연의 장.

#### ■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 “경기도의 전통예술, 전통문화는 문화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슬로건 하에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 문화원을 통한 지역 전통예술 육성 지원사업.

### ▣ 콘텐츠 제작

#### ■ 경기문화저널

·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의 담론 형성 및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임직원들의 문화적인 삶, 경기도 문화원의 미래를 담은 저널 발간

■경기도 시낭송의 밤 <시가예찬>

: "문화원이 지역 인문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슬로건 하에 경기도의회 의원 및 문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여 경기도의 문화원형을 매개로한 인문학적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 문학적 정체성 및 저력을 발 견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림

■경기도 문화원 한마당 <페스티벌 31>

: 경기도문화원축제로 공연예술, 전시부문의 1년간의 성과를 도민과 나누는 축제의 장.웅북합콜라보레 이션기획공연인 '내가있는날31'을 중심으로 '생각하는손31', '문화원이야기31', '나이없는날31'의 4마당 으로 구성되어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수준 높은 공연전시콘텐츠.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 <미래유물전>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대안형 프로젝트로 출발한 기획전시로 기존 향토, 전통문화, 지역의 정체성 을 구성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시켜 문화원의 지역 내 위상을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한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경기도문화자원아카이브사업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매뉴얼 리포트를 시작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연계하여 문화원 보유 자료를 재 맥락화, 재 구조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단초를 열기 위한 사업

■경기도 문화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경기도 문화원 역량강화 사업

-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3회): 경기도 지방문화원 국장, 직원 대상 연수
- 2016년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경기도 지방문화원 임직원, 회원 대상 연수
- 경기도문화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 경기도 문화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조직, 법 제, 운영 등의 안건으로 구체적 발전 방향 제시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구축사업

: 경기도 지방문화원장, 국장, 대상 선진지역(해외) 문화정책 탐방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어르신기획자교류지원사업

: 어르신 사업의 새로운 대안을 현장 기획자와 컨설턴트가 함께 답을 찾고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교 류,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함.

■권역별 어르신 성과사업

: 어르신 사업의 성과를 전시 및 공연의 장에서 선보이게 하여 지역 내 어르신 사업의 활성화 및 자긍 심 고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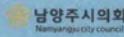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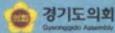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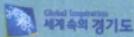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사업 <문화품앗이>

: 지역 내 문화자원봉사 홍보 및 매칭시스템 관리를 통한 지역민 주도 적극적 문화 향유 및 문화복지 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주최·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관  남양주문화원

후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 031-239-1020 / F. 031-239-3785

■ 본 공연은 2016년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